

세계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비교연구*

온만금 · 강민형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체 애착심, 국가 자긍심, 및 대외적 쟁점에 대한 양 국민의 태도를 비교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소 복잡하지만 예상한 바와 같이 양국은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추이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그 수준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스포츠 영역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도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외적으로는 보다 개방적이다. 그러나 양 국민은 경제 교류를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유 무역이나 외국 제품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특히 한국인은 외국 문화나 외국인의 토지구입에 대해서도 배타적이다. 일본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며, 나이가 들수록,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국가 자긍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국가 애착심은 강해지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가 자긍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국가 정체성, 애착심, 자긍심, 배타성, 개방성

온만금 육군사관학교 교수(사회학). mgohn@kma.ac.kr (교신저자)
강민형 육군사관학교 강사(사회학). avoir0128@kma.ac.kr

* 이 연구는 2005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이나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유럽 공동체(EU)가 출범한 이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의 정체성이 약화 혹은 소멸할 것이라고 예견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적 물적 교류와 접촉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가 정체성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 국가 정체성 문제는 사회과학자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이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의 결과로서 그것에 대한 이론적 전망과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는 그리 흔치 않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연구가 흔치 않은 이유는 첫째,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역사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여 양국의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며, 둘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속에 각국의 정체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이것이 소위 초국가적 시민정신에 비추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오래 전부터 세계화의 흐름에 주류로 참여해 온 일본과 뒤늦게 이에 동참한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이 연구는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애착심 및 자긍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양 국민들의 태도를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공동체 애착심, 국가 자긍심, 및 교역을 포함한 대외적 쟁점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태도가 어떤지 비교, 분석하고 이런 태도나 의식들이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일본과 한국의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국가 정체성 일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성, 계급, 세대, 종교, 언어, 국가 등에 기반을 둔 집단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는 오늘날 중요한 집단 정체성의 원천으로 부각되었다(Smith, 1991). 국가 정체성이란 바로 국가와 연관된 사회 정체성으로서 국가 자긍심, 집단 응집력, 대외 관계나 쟁점들에 대한 태도, 정서, 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민국가나 민족주의(nationalism)와 연관된 정치체제나 이념, 무역이나 이민 문화 교류와 같은 쟁점들과 대외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행해졌다(Castle & Kalantzis & Cope & Morrissey, 1988; Choe, 2003; Fitzgerald, 1996; Gellner 1983). 한편, 사람들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접하면서 기억 속에 있는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이 특정 국가나 국민들에 대해 형성된 정신적 도식 즉, 고정 관념(stereotype)을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 국가 간 편견이나 갈등을 이

해하려는 시도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미시적 연구다(Hopkins & Murdoch, 1999). 이런 연구들은 특정 국가나 자신의 국가에 대한 선호도, 거리감, 우월감이나 열등감, 포용성 또는 배타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정기선, 2004), 사람들은 특정 국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좋다' 혹은 '싫다'는 감정이나 가깝다거나 혹은 멀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거리감 분석을 통해 집단 편견과 갈등을 분석하려는 보가더스(Bogadus, 1925)의 연구나 그 후속연구(Kleg & Yamamoto, 1998)는 미시적 차원의 국가 정체성 연구의 전형적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적 차원에서 국가 정체성에 관한 다른 연구로는 자국에 대해 갖는 감정(sentiment) 즉, 자긍심(national pride)이나 애착심(emotional attachment), 소속감과 충성심 등을 분석하고, 그 감정이 다른 가치지향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Evans & Kelly, 2002).

이런 가치관이나 태도는 근대화의 수준, 그리고 교육정도나 수입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Pye, 1966; Inglehart, 1977; 1979; 1982). 근대화론에 의하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회 환경과 습관 그리고 애착심으로부터 벗어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성원자격, 조직, 그리고 애착심을 갖게 된다. 도이취(Deutsch, 1953)는 이를 전통적 지역주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로 통합되며, 보편주의가 특수주의를 대신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화의 영향을 인켈리스와 스미스(Inkeles & Smith, 1974)는 '개인적 근대성 증후군'(individual modernity syndrome)이라고도 명명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대한 개방적 태도, 사회변화에 대한 준비성, 소집단보다 국가의 일을 중시하며, 과거보다는 현재나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 그리하여 근대사회 구성원들은 운명을 수동적으로 수용

하기를 거부하고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거나 원초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약화된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근대화와 경제발전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일본은 일찍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 근대화 과정을 거쳤고,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개혁으로 근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반면,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조선왕조 말기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은 전쟁의 참화와 정치적 소요 그리고 군의 정치개입을 경험한 뒤 근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오래 전부터 근대화 과정을 거쳐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오늘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반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비로소 근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여러 영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일본 국민들은 자국의 발전에 대해 자긍심과 애착심을 느끼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반면, 뒤늦게 근대화 과정을 거치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덜 개방적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유교는 양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 각기 다르게 작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유교는 삼강오륜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윤리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규제하는데(Sills, 1980: 403), 한국 사회에서 유교는 혈연 관계에 바탕을 둔 가정을 중시하고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혈연관계나 가족을 넘어서 일터 혹은 공장 가족주의(장상희·조정문, 2004)를 정착시키는데 유교가 크게 기여하여 공동체 집단의식과 위계서열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가정이나 소규모 혈연 공동체에 보다 애착을 느끼는 반면, 일본인들은 지역이나 공장과 같이 보다 큰 공동체에 애착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수영(1997)은 한국인들은 보수적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태도는 나이와 교육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였고, 은기수(2006) 역시 한국인들은 경제수준에서 낙후된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며 급격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변화로 인해 가치관에서 양극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남녀의 역할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으며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적(Makita & Ida, 2000; Mohwald, 2000)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대한 설문결과(시사저널, 1996; 62)에서는, 각국의 젊은 경영인들은 가족이나 혈연집단을 중시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혈통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기업의 지속성을 중시하여 가족에 의해 혈연관계를 포함하여 기업 일가가 출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좋은 상품이라면 외국 제품도 개의치 않고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반해, 한국인은 유보적인 비율이 높았으며, 일본인들은 자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3.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및 변수측정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설문지로 양국 국민들의 가치 지향과 국가 정체성에 관한 설문결과를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계화의 진척과 더불어 국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2003년 국제사회조사기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는 세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정체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이 설문조사를 일본에서는 NHK가, 한국에서는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가 각각 주관하였고 그 설문결과를 이 연구에서 활용,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인 2000명을 다단계 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한 결과, 분석대상에 포함하기 부적절한 685명을 제외한 1315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2단계 계층화된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16세 이상 1800명의 표본을 추출, 설문한 결과, 595명이 포함하기 부적절하여 이를 제외한 11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수입은 응답자 개인과 가구의 월별 수입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였고, 교육은 교육 연수와 이수 받은 학위의 두 종류로 측정되었다. 예비적 자료 분석 결과, 가구별 수입보다 응답자의 개인 수입이, 그리고 교육 연수보다 학위 차이가 더 설명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수입은 개인별 수입으로, 교육은 학위별 수준을 무학에 0 점, 대학원 졸업에 5점을 부여한 학위변수를 택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계층 지위는 응답자가 스스로 가장 낮을 경우 1, 가장 높을 경우 10의 수치를 부여하여 측정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래 설문 결과에는 부정적인 응답에 5와 같은 큰 수치를, 긍정적인 응답에는 1과 같은 작은 수치를 부여하였으나, 용이한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긍정적인 응답은 큰 수치로, 부정적인 응답은 작은 수치로 각각 전환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공동체 애착심, 국가 자긍심 및 대외적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t-검증방법을 활용하였고, 첨도(kurtosis) 값은 가치관이나 태도의 양극화, 분산, 혹은 집중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가치관이 서로 상충되어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첨도 값은 -2에 근접한다.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가치관이 균등하게 분포되

어 있을 때는 그 수치가 -1.3이고,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면 그 수치는 0에 가까우며, 정규분포보다 더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수치는 양의 값을 가진다(Eun, 2004; DiMaggio & Evans & Bryson, 1996). 이러한 첨도를 활용하여 한 집단 구성원의 태도의 분산, 집중, 또는 양극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별, 연령, 교육, 수입 및 계층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국가 애착심, 국가 자긍심 및 자국 이익 추구, 토지구매,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4.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가 정체성 비교

1)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비교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차원의 공동체에 어느 정도 애착심을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나 군 단위 공동체, 둘째, 도나 광역시, 셋째, 국가,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애착심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t-값 및 첨도 수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수치 3 이상은 긍정적인 애착심을 의미하며, 수치 3은 중립적이며, 수치 3 이하는 애착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추이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즉, 양 국민은 국가 애착심 수치가 가장 높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등에 대한 애착심 수치가 그 다음으로 높고, 도나 광역시에 대한 애착심 수치는 세 번째이고, 아시아에 대한 애착심이 제일 낮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국가는 물론 시와 군, 그리고 도와 광역시에 대한 애착심 수치가 3.0 이상으로 애착심을 갖는데 반하여, 한국인은 국가에 대한 애착심 수치만 3.23으로 긍정적일 뿐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는 3.0 이하로 애착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의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침도

| 공동체 수준 | 국가 | 평균치 | 표준편차 | t-값(유의확률) | 침도 |
|--------|----|------|-------|---------------|--------|
| 시, 군 | 일본 | 3.25 | 0.707 | 5.612(<.001) | 0.457 |
| | 한국 | 2.92 | 0.774 | | -0.524 |
| 도, 광역시 | 일본 | 3.19 | 0.680 | 12.766(<.001) | -0.086 |
| | 한국 | 2.80 | 0.814 | | -0.595 |
| 국 가 | 일본 | 3.40 | 0.665 | 5.859(<.001) | 0.396 |
| | 한국 | 3.23 | 0.755 | | -0.071 |
| 아시아 | 일본 | 2.69 | 0.848 | 15.551(<.001) | -0.486 |
| | 한국 | 2.12 | 0.842 | | -0.467 |

또한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에서도, 일본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국의 애착심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한 t-값과 유의도 수준을 검토한 결과,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높고 양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는 혈연 중심의 소규모 가족 공동체에 대한 연대를 중요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가족을 초월하여 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집단 의식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기존 이론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침도 수치로 태도나 가치관의 양극화나 분산 혹은 집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애착심에 대한 침도 수치가 공히 0에 가까워 구성원의 태도가 크게 분산되지도, 그렇다고 양극화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거주 시군 및 국가에 대한 침도 값이 양수여서 공동체에 대한 일본인의 애착심이 정규분포보다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모든 침도 값이 음수로 나타나 상당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 자긍심 비교

다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민주주의 제도,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제도, 스포츠 분야에서 성과에 대해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긍심의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첨도 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양국은 국가 자긍심 추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양 국민은 공히 국제적 영향력과 스포츠의 성과에 대해서 수치 3 이상으로 자긍심을 느끼나, 민주주의나 경제적 성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수치 3 이하로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가 자긍심의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첨도

| 영역 | 국가 | 평균치 | 표준편차 | t-값(유의확률) | 첨도 |
|---------|----|------|-------|---------------|--------|
| 세계적 영향력 | 일본 | 4.32 | 1.071 | 8.787(<.001) | 2.172 |
| | 한국 | 3.97 | 1.001 | | -0.410 |
| 민주주의 정착 | 일본 | 2.68 | 0.716 | 13.786(<.001) | 0.001 |
| | 한국 | 2.26 | 0.707 | | 0.012 |
| 경제적 성취 | 일본 | 2.64 | 0.826 | 6.351(<.001) | -0.404 |
| | 한국 | 2.43 | 0.745 | | -0.315 |
| 사회보장제도 | 일본 | 2.28 | 0.811 | 11.223(<.001) | -0.618 |
| | 한국 | 1.92 | 0.696 | | -0.008 |
| 스포츠 분야 | 일본 | 3.25 | 6.88 | 2.579(<.01) | 0.450 |
| | 한국 | 3.18 | 0.647 | | 0.471 |

양 국민의 국가 자긍심의 추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일본인과 한국인의 자긍심 수치는 각각 4.32와 3.97로 차이가 있으며, 스포츠 영역의 성과에 대한 자긍심 수치는 각각 3.25와 3.18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양국은 국제적 영향력과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자긍심의 첨도 값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일본의 경우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자긍심의 첨도 수치가 2보다 커서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자긍심에서 일본인들은 정규분포의 경우보다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첨도 수치는 일본이 -0.618로 한국의 -0.008보다 작는데,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한 한국인보다 일본인의 이견이 심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3) 국제기구 및 기타 국제적 쟁점에 대한 견해 비교

국제기구 및 국제적 쟁점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첨도 수치를 <표 3>에 요약,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공동체 애착심이나 국

가 자긍심과는 달리 국제적 쟁점에 대한 태도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 권력행사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수치가 각각 4.01과 3.89로 양 국민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권력행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 추구나 국제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반응이며, 국제적 결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즉, 한국인은 국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수치 3.53으로 동의하는데 반해, 일본인은 수치 2.61로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권력이 비대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인들은 수치 3.63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일본인들은 수치 2.92로 이런 견해에 약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스러워도 국제적 결정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본인은 수치 3.11로 동의하나, 한국인은 수치 2.99로 약하게 부정한다. 국제적 쟁점들에 대한 양국의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논의에서 보다 근대화되고 발전한 국가일수록 국제적 질서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불만족스러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결정을 수용하는 경향이며, 대외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한국인들은 국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불만족스러운 국제적 결정에는 따르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표 3> 국제적 쟁점에 대한 태도의 평균치, 표준편차, t-값 및 침도

| 주요 쟁점 | 국 가 | 평균치 | 표준편차 | t-값(유의확률) | 침도 |
|--------------------------|-----|------|-------|----------------|--------|
| 환경문제에 강력한 국제 권력행사 | 일 본 | 4.01 | 1.053 | -2.833(<.001) | 0.402 |
| | 한 국 | 3.89 | 0.844 | | 0.758 |
| 국제적 갈등에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추구해야 | 일 본 | 2.61 | 1.293 | -18.568(<.001) | -0.955 |
| | 한 국 | 3.53 | 1.021 | | -0.635 |
| 불만족해도 국제적 결정 존중해야 | 일 본 | 3.10 | 1.190 | -2.298(.02) | -0.646 |
| | 한 국 | 2.99 | 0.966 | | -0.652 |
| 국제기구 권력 비대화 | 일 본 | 2.92 | 1.174 | -14.827(<.001) | -0.629 |
| | 한 국 | 3.63 | 0.850 | | 0.117 |

한편, 침도 값이 양수라는 사실을 통해 양 국민들의 태도가 정규분포의 경우보다 더 의견 통일이 되어 있고, 특히 환경문제와 국제기구 권력에 대한 태도에서는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더욱 동질적이고 이견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국의 이익 추구나 국제적 결정과 관련된 침도 수치는 공히 음수로 나타나 양 국민의 태도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외국 관련 쟁점에 대한 견해 비교분석

외국 제품, 외국인의 토지구입, 다국적 기업 및 자유 무역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침도 수치를 <표 4>에 요약, 정리하였다. 외국 제품의 수입 규제 의견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태도 평균치가 각각 3.40과 3.14로 긍정적하나 한국인이 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구입 금지 의견에 대해 일본인은 수치 2.73으로 부정적인 반면, 한국인은 수치 3.60으로 이에 긍정적이며, 다국적 기업이 해롭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 국민은 각각 수치 3.30과 3.27로 비슷하게 동의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교역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 무역에 호의적이지 않다(각각 수치 2.01과 2.41)는 사실은 예상 밖이며, 교역의 수혜자들이 자유 무역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태도를 제외한 대외적 쟁점에 대해서 양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개방적일 것이라는 앞의 예측은 외국 제품, 자유 무역 등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외국 제품, 토지구입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침도 값이 거의 -1에 가깝다는 점은 양 국민의 의견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반면, 자유 무역과 관련하여 양의 침도 수치는 양 국민의 태도에 큰 이견 없이 정규분포 경우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는 일본이 더 심하다.

<표 4> 외국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의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첨도

| 주요 쟁점 | 국 가 | 평균치 | 표준편차 | t-값(유의확률) | 첨도 |
|----------------|-----|------|-------|----------------|--------|
| 외국 제품 수입 제한 | 일 본 | 3.14 | 1.329 | -5.081(<.001) | -0.999 |
| | 한 국 | 3.40 | 1.082 | | |
| 외국인 토지구입 금지 | 일 본 | 2.73 | 1.394 | -16.002(<.001) | -1.155 |
| | 한 국 | 3.60 | 1.112 | | |
| 다국적 기업은 해롭다 | 일 본 | 3.27 | 1.320 | .523(.58) | -0.956 |
| | 한 국 | 3.30 | 0.979 | | |
| 자유 무역은 긍정적 | 일 본 | 2.01 | 0.991 | 10.189(<.001) | 0.988 |
| | 한 국 | 2.41 | 0.874 | | |

5) 외국 문화에 대한 태도 비교

인터넷, 외국 영화나 음악,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첨도 수치를 <표 5>에 요약, 정리하였다. 양 국민은 공히 인터넷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데 일본인이 더 적극적이다(각각 4.04와 4.48). 그러나 외국 영화나 음악이 해롭다는 의견에 일본인은 수치 2.54로 동조하지 않는 반면, 한국인은 수치 3.25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텔레비전에 국내 프로를 많이 방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본인은 수치 2.90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한국인은 수치 3.56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고, 특히 한류의 유행과 함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외국에서 인기 있는 등 문화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에 대해 한국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의외의 결과이다.

<표 5> 외국 문화에 대한 태도의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첨도

| 주요 쟁점 | 국 가 | 평균치 | 표준편차 | t-값(유의확률) | 첨도 |
|---------------------|-----|------|-------|----------------|--------|
|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 제공 | 일 본 | 4.48 | 0.858 | 12.384(<.001) | 4.701 |
| | 한 국 | 4.04 | 0.815 | | |
| 외국영화 음악 책은 해롭다 | 일 본 | 2.54 | 1.327 | -13.501(<.001) | -1.149 |
| | 한 국 | 3.25 | 1.110 | | |
| TV는 많은 국내프로 방영해야 | 일 본 | 2.90 | 1.360 | -12.816(<.001) | -1.130 |
| | 한 국 | 3.56 | 1.050 | | |

<표 5>에 제시된 t-값을 통해 외국 문화와 관련된 양 국민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국 문화에 대해 일본인이 보다 더 개방적이고, 국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부정적인데 반해 한국인들은 긍정적이다. 이론적 검토에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일본보다 가치관에서 양극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침도 수치를 통해 한국인의 태도가 특별히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 주요 쟁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국가 애착심과 국가 자긍심 및 국내외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성별, 연령, 교육, 수입,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국가 애착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두 나라에서 국가 애착심이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설문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애착심의 R^2 수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R^2 수치는 .044이고, 한국의 경우는 .021로 확인되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정된 R^2 수치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라 애착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성별, 나이, 그리고 수입이 국가 애착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계층이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애착심이 .108 표준단

위 만큼 높고, 나이에서 한 표준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애착심은 .163 표준단위만큼 높아져 나이가 들수록 국가 애착심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에서 한 표준단위 증가는 애착심에서 .098 표준단위만큼 상승시켜 수입 역시 국가 애착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표 6> 국가 애착심에 대한 표준 회귀계수

| 변 수 | 일 본(n=706) | 한 국(n=653) |
|----------------|------------|------------|
| 성 별 | - .108** | .063 |
| 나 이 | .163** | .066 |
| 교 육 | - .046 | -.072 |
| 수 입 | .091** | -.013 |
| 계 층 | .056 | .078* |
| R ² | .044 | .021 |

*p<.05, **p<.01

한편, 한국의 경우 계층 지위가 국가 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계층 지위에서 한 표준단위가 올라감에 따라 국가 애착심 역시 .078 표준단위만큼 높아져 스스로 상위 계층이라고 인식할수록 국가에 대한 애착심 역시 높아진다. 또한 교육에서 한 표준단위 증가는 국가 애착심을 .072 표준단위만큼 상승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2) 국가 자긍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보는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국가 자긍심에서 R² 값이 일본의 경우는 .082, 한국의 경우는 .093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나이와 교육 그리고 수입과 계층이 국가 자긍심의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나이에서 한 표준단위의 증가는 국가 자긍심을 .162 표준단위만큼 높이는 반면, 교육에서 한 표준단위 상승은 국가 자

공심을 .088 표준단위만큼 떨어뜨리고, 수입에서 한 표준단위의 증가는 국가 자공심을 .136 표준단위만큼 떨어뜨린다. 반면 계층 지위에서 한 표준단위의 상승은 국가 자공심을 .129 표준단위만큼 강화시켜, 계층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국가 자공심도 높아진다.

한편, 한국의 경우, 성별과 나이 그리고 교육 변수가 국가 자공심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한국 남성보다 여성의 국가 자공심이 .085 표준단위만큼 높고, 나이에서 한 표준단위 상승은 국가 자공심을 .202 표준단위만큼 증가시켜 한국인 역시 나이가 들수록 국가 자공심도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에서 한 표준단위가 높아질 때 국가 자공심은 .212 표준단위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일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스스로 계층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국가 자공심은 높아지는 반면, 수입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 자공심은 낮아지는 경향이다. 한편, 한국인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자공심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국가 자공심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 자공심은 낮아지는 경향이다.

<표 7>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국가 자공심의 표준 회귀계수

| 변 수 | 일 본(n=712) | 한 국(n=659) |
|----------------|------------|------------|
| 성 별 | -.006 | -.085* |
| 나 이 | .162** | .118** |
| 교 육 | -.088* | -.212** |
| 수 입 | -.136** | -.056 |
| 계 층 | .129** | .027 |
| R ² | .082 | .093 |

*p<.05, **p<.01

3) 자국의 이익 추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국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 R^2 가 .021, 한국의 경우 .023로 여기서도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자국의 이익 추구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국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이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즉, 교육수준에서 한 표준단위가 상승하면 자국의 이익 추구 경향이 .100 표준단위만큼 떨어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국의 이익 추구 성향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국 이익 추구에 나이, 수입, 그리고 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한국의 경우, 나이가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나이에서 한 표준단위 증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 성향을 .091 표준단위만큼 강화시켜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국의 이익 추구 의견에 대한 표준 회귀계수

| 변 수 | 일 본(n=652) | 한 국(n=655) |
|-------|------------|------------|
| 성 별 | .009 | -.034 |
| 나 이 | .045 | .091** |
| 교 육 | -.100* | -.044 |
| 수 입 | .046 | -.029 |
| 계 층 | .081 | -.056 |
| R^2 | .021 | .023 |

* $p < .05$, ** $p < .01$

결국 일본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까지 국가이익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과는 과거 일본이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일으킨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적 응징으로부터 얻은 교훈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예상된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거의 교훈을 기억

하여 국제적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자국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이런 역사적 경험이 전무한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국인 토지구입 금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편, 외국인의 토지구입 주장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나이와 수입이 주요 변수로, 한국의 경우는 성별과 교육 변수가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 9> 외국인 토지구입 금지의견에 대한 표준 회귀계수

| 변수 | 일본(n=644) | 한국(n=651) |
|----------------|-----------|-----------|
| 성별 | -.026 | -.090** |
| 나이 | .224** | .001 |
| 교육 | .043 | -.149** |
| 수입 | -.150** | -.048 |
| 계층 | .055 | -.005 |
| R ² | .094 | .038 |

*p<.05, **p<.01

즉, 일본의 경우 나이에서 한 표준단위가 증가하면 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의견이 .222 표준단위만큼 높아져 나이가 들수록 외국인의 토지구매에 부정적이며, 수입에서 한 표준단위가 올라가면 금지의견이 .150 표준단위만큼 떨어져 수입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의 토지구매를 수용하는 성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의 토지구매에 대해 여자보다 남자가 .090 표준단위만큼 수용적이며, 교육수준에서 한 표준단위가 올라가면 .149 표준단위만큼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국내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된 회귀분석 결과

국내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을 찾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 프로그램에 대해 나이, 교육, 수입 변수가 중요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 변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국내 프로그램 방영 의견에서 나이에서 한 표준단위 올라가면 .212 표준단위만큼 올라가 국내 프로에 긍정적이며, 반대로 교육수준에서 한 표준단위가 올라가면 국내 프로그램 방영 의견에 .135 표준단위만큼 내려가 부정적이며, 수입에서 한 표준단위 상승으로 .174 표준단위만큼 내려가서 국내 프로그램 방영에 부정적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에서 한 표준단위가 올라가면 국내 프로그램 방영 의견에 대해 .212 표준단위만큼 줄어들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프로에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0> 국내 프로 방영의견에 대한 표준 회귀계수

| 변수 | 일본(n=682) | 한국(n=654) |
|----------------|-----------|-----------|
| 성별 | .011 | -.061 |
| 나이 | .212** | .059 |
| 교육 | -.135** | -.212** |
| 수입 | -.174** | -.040 |
| 계층 | .045 | -.068 |
| R ² | .105 | .085 |

*p<.05, **p<.01

결국 일본인은 나이가 들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적을수록 국내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반면, 젊을수록 그리고 수입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본인들은 국내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내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국의 프로그램 방영에 부정적이다.

6.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국가 자긍심, 공동체 애착심, 그리고 여러 국제적 쟁점에 대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에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소 복잡하여 단순화하기 쉽지 않지만, 대체로 이론적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즉, 예상한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은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추이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애착심 수준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스포츠 부문의 성취에 대해서도 한국인보다 더 긍지를 느끼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반면, 양 국민은 대외 경제 관계와 교류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이나 외국 제품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양 국민은 공히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외국 문화와 외국인의 토지구입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에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반면, 한국의 경우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국가 애착심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국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가 자긍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외국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자국의 이익 추구 경향은 약해지나, 한국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외국인의 토지구입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이고 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이데, 한국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국내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국가 정체성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밝혔다는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자료가 없어서 그 추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국가 정체성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변수들 외에 여러 다른 변수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본다. 그 가운데 각국의 고유한 특성들, 예를 들면 반도 기질이나 도서의 특성들을 포함한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른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어수영. 1997.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 4개국 비교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장상희·조정문. 2004.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3): 39-80.

정기선. 2004. “한국의 국가정체성 비교연구.” 제 1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 한국인의 가치지향-비교연구 발표문. 2004. 6. 2 『시사저널』. 1996. “한·중은 혈통, 일본은 가업 중시.” 370: 62-64. 1996. 11. 28.

- Bogadus, Emory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 299-308.
- Castle S., Kalantzis M., Cope B., & M. Morrissey. 1988. *Mistaken Identity: Multiculturalism and the Demise of Nationalism in Australia*. Sydney: Plute Press.
- Choe, Hyun. 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 Deutsch, Karl. 1953.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New York: Wiley.
- DiMaggio, P., Evans K., & B. Bryson. 1996.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3): 690-755.
- Eun, Kisoo. 2004. "Culture Wars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Changes of Family values," presented at the 36th *World Congress of I. I. S. in Beijing*, July 9.
- Evans M. D. R. & Jonathan Kelly. 2002. "National Pride in the Developed World: Survey Data from 24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3): 303-338.
- Fitzerald, Keith. 1996. *The Face of Nation: Immigration, the State, and the National Ident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 Hopkins, Nicks & Neil Murdoch, 1999. "The Role of the 'Other' in National Identity: Exploring the Context-dependence of the National Ingroup Stereotype."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21-338.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 and Political Style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Socio-economic Change and Human Value Priorities, in S. H. Barnes, M. Kaase, et.al.(eds.), *Political Action*. Beverly Hills: Sage.
- _____. 1982. "Changing Value in Japan and the Wes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4: 445-479.
- Inkeles Alex & David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s in Six Developing Countries*. Mass: Harvard Univ. Press.
- Kleg, Milton & Kaoru Yamamoto. 1998. "As the World Turn: Ethno-racial Distance after 70 Year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5(2): 183-190.
- Makita, Tetsuo & Mieko Ida. 2000. "Highlights of Value Change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 426-432.
- Mohwald, Ulrich. 2000. "Trends in Value Change in Contemporary Japan." <<http://www.bl.uk>>
- Pye. L. W. 1966. *Aspect of Political Culture: An Analytic Study*. Boston: Little, Brown.
- Smith, Anthony D. 1991. *National Identity*. Nevada: University of Nevada Press.
- Sills, David L. (ed.). 198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2. Macmillan Co. & Free Press.

온만금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 사회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군대사회학』(2006), "한국 장교단의 진급에 관한 연구"(2005)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강민형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 사회학 강사로 일하고 있다.

[2008. 3. 14. 접수; 2008. 3. 22. 채택]